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특성과 변화*

-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을 중심으로 -

김영수

제주대

I. 서론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특정이데올로기를 국가의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¹⁾ 이에 주체사상은 현재 북한사회에서 정치발전의 목표와 정치활동지침을 결정해 주는 최고이념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생활의 행위준칙을 결정해 주는 도덕규범으로, 그리고 행위의 선악을 가려주는 종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 체계화 과정을 볼 때 북한과 관련된 국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가변성을 뜻하는데,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체제내에서 일정한 자기 구속력을 유지해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에 따라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해 자기수정적인 변용을 실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이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란 점은 "주체사상의 역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그 자체"라는 김일성의 말과²⁾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으며 시대적, 역사적 조건과 무관할 수 없다"³⁾는 김정일의 지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시대와 환경의 산물로서 형성된 주체사상이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초래한 대내외의 위기에 당면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라든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변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변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 주체사상의 본질적 성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족주의적 치료법'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지배체제의 유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북한의 특수한 환

*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통일문제 국제학술 세미나 "북한의 실상과 변화가능성" (1993. 11. 9)에서 발표된 것임.

1) 1992년 4월 9일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조 규정.

2) 김일성,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카이>>편집국장과 한 담화," (1972년 10월 6일)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1972.1-197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421.

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집』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70.

4) Anthony D. Smith, "공산주의적 민족주의," 차기벽 편, 『민족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4), p. 358.

경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그 ‘과정’을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형성배경 및 체계화 과정에서 획득한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규명한 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도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변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이론적 내용과 함께 주체사상 변용이 민족주의 강조로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

1. ‘주체’의 제기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규명하기 전에 먼저 주체사상의 출현배경과 이후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주체사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통치엘리트들이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주체’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것은⁵⁾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란 제목으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 이 연설은 주로 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소련파, 연안파 등의 과오를 주체적인 기준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옹기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⁶⁾

위의 연설내용에는 당시 왜 북한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1953년 휴전 이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제를 복구하고, 아직까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는 김일성의 당내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상황이 각 공산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주체’가 처음 등장한 1955년 말이라는 시기는 소련의 심한 내정간섭과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파벌투쟁, 전쟁으로 인한 국내경제문제 등 북한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해서

5) 현재 북한에서는 1930년 만주 길림성 소재 장춘현 카룬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이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앞의 글, p. 70.

6) 『김일성 저작집』, 제9권 (1954. 7-1955.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8-478.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면서 김일성 중심체제에 반대하던 자들을 당의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종파분자, 수정주의자,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 대국맹종주의자, 그리고 민족허무주의자란 낙인을 씌워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제거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상적 무기로서 ‘주체’를 내세웠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대내적 계기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소이념분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이라는 대외적 계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국제환경이 동서간의 평화공존과 국제긴장완화의 분위기로 변하게 되자 스탈린주의를 따르던 김일성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 진영내부와 미소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부영향이 북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제적 상황도 ‘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어느 한 쪽에의 편향 및 경사에서 오는 불이익과 피해를 모면하기 위한 노선설정의 필요에서 즉, 실리외교의 차원에서도 ‘주체’ 제기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상황적인 배경에서 1955년 12월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창한 이후,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을, 1957년에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를,⁷⁾ 1966년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를 당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거론하면서 점차 ‘주체’ 개념을 각 부문별로 구체화하던 중, 마침내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이 바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탈마르크스-레닌주의화’ 경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과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의 지도사상 관련조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언급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2.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1955년 당차원에서 ‘주체’의 개념이 제기된 이후 1960년대의 복잡한 대외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점차 주체사상이라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실제로 주체사상이란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196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12월 『로동신문』은 무기명 논설을 통해 “주체에 대한 사상은 우리당이 자기행동에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임을 주장하면서 “당의 주체사상을 실생활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그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함”⁸⁾을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체사상이 주로 당정책이나 방침의 원칙수준에서 제

7) 주체사상의 4개 노선의 구체적 내용 및 제시시기에 대해서는 Yang Ho-min, “Juche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hung Chong-Shik, Kim Gahb-chol (eds.), *North Korean Communism: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p.156-168 참조.

8)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2년 12월 19일.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p.155-156에서 재인용.

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1965년 4월,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김일성의 연설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주체확립에 관한 내용인 이른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4개 노선이 그것이다.⁹⁾ 이후 김일성은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로동신문』의 논설에서 당의 자주노선을 천명하게 되고, 이러한 당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은 1967년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국가활동의 당면과업인 공화국정부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의 구현을 국가 모든 부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인식에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으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김일성 개인승배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1968년경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8년 8월에 개최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¹⁰⁾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1969년의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만이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¹¹⁾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런 관점은 1970년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를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서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은 더욱 본격화되는데, 1972년부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즉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¹²⁾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점차 보편적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가게 된다. 즉 주체사상에 자주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원리’를 도입하면서 이론적 체계화 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보다는 독창성이 강조된 ‘김일성주의’로 불리워지게 되는데,¹³⁾ 이는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인승배현상¹⁴⁾의 이론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70년대의 주체사상 체계화 작업은 주체사상을 단순한 노선 차원의 것이 아니라 철학적 원리를 가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이후, 1982년에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킨 것이며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불분명하게 다루어지던 철학적 원리가 자주성, 창조성,

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김일성 저작집』, 제19권 (1965.1-1965.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278-329.

10) 『로동신문』, 1968년 8월 30일.

11) 『로동신문』, 1969년 4월 29일.

12)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찌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1972.1-197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390-391.

13) 1973년부터 통일혁명당이나 재일조총련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1974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주체 과학 토론 전국집회에서 김일성주의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앞의 글, pp.160-161 참조.

14) 개인승배현상의 내용 및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앞의 글, pp.253-303 참조.

의식성의 입장에서 세분화되고 있고, 이에 기초한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이 제시되어 마치 김일성의 거의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 담을 수 있는 체계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체계화 작업은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1985년에 발행된 『위대한 주체사상총서』(전10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정리하면, 주체사상은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형태로 처음 제시되고, 1970년대에 철학적 원리가 도입된 후, 1982년의 김정일에 의해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이 다듬어지면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인 이른바 ‘주체사상의 전일적 체계’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Ⅲ.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주체사상의 형성배경 및 체계화 과정을 볼 때, 주체사상에는 주체사상이 출현하기 이전의 통치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으며, ‘주체’제기 이후의 북한의 대내외의 ‘역사’와 북한체제에 잠재되어 있는 ‘전통’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체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특성

북한체제는 소련점령군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체제를 승계받으면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주체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개혁목표와 관련하여 근로대중의 해방과 근로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 개인소유제의 부정, 전체주의적 가치관 등의 마르크스주의적 요소와 혁명의 성취방법에서 당중심의 대중동원을 주축으로 하는 레닌주의적 요소가 사상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출현과정에 있다. 즉 토착세력에 의한 혁명을 거치지 않고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창출된 타율적인 정권수립이었기에 권력의 정통성부분에서의 상대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이념적으로 순수성을 고수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체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이른바 전체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

북한정치체제는 원래 ‘가지지 않은 자들의 독재’라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수용하여 수립된 정치체제였으나, 현재는 ‘김일성 왕국’, ‘김일성 봉건왕조체제’, ‘부자세습체제’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가지지 않은 자들로 시작된 ‘좌’의 전체형태가 오늘날 강한 자 그리고 우수한 자의 지배형태인 ‘우’의 전체형태, 예컨대 플라톤의 철인통치에 상응하는 지배형태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런 특성은 수령의 절대적인 권한과 특출한 자질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되고 있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잘 나타나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후계자론에도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주체사상 이론체계에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

보다도 먼저 이전에 형성된 전통문화의 영향력과 이를 통치차원에서 활용한 북한 통치엘리트들의 통치철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공산화과정에서 전통적봉건성을 씻어내는 과도기로서의 혁명적 근대시민사회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선조의 정치사회구조가 일제 식민통치를 지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음으로써, 조선조 전통사회의 사회화동원리인 삼강오륜의 예규에 따른 가부장적 전통, 주자학적 왕도정치사상, 전통적 중앙집권통치 경향 및 관료제 전통, 신분제에 따른 사회구조와 계급의식, 그리고 일제의 무단적 식민통치, 관존민비적 사고방식 등¹⁵⁾의 전통적 요소가 어느 정도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지배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체제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통치자의 의지가 바로 주체사상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배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 풍토와 결합하여 레닌주의를 낳고 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문화에 접합되면서 모택동사상으로 각색되었듯이, 해방 이후 소련에 의해 유입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전의 전통문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권위주의적 특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3. 민족주의적 특성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 특성은 이미 '주체'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수립 초기단계에서도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족문화 및 민족역사연구가 강조되기도 했지만,¹⁶⁾ 그 당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주도하던 분위기여서 이런 특성이 공식화되기는 어려웠으며, 더욱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정권을 수립한 북한으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워 소련에 대한 반사대주의적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중반의 소련내의 반스탈린운동과 이의 국내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권력투쟁이 빛은 국내의적인 절박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가 제기되었는데, 이때부터 통치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체'를 강조함에 있어 반사대주의적 자세를 역설한 것은 전통적인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민족의 역사가 바로 외침에 대한 끈질긴 항쟁, 인접한 강대세력들 사이에서의 민족적 자주국가로서의 존속과 발전, 고유한 민족문화전통 보존의 노력 등으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통치엘리트들이 제기한 '주체'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전통'의 관점에서는 매우 친숙한 개념이었으며, 일제식민경험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주체'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북한 통치엘리트들의 정치적 필요성과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정향이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체'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최근들어 민족주의에 대해 전환적 자세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민족공산주의 개념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으로 가장하는 부르조아의 사상'¹⁷⁾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써왔다.

15) 이지훈, "한국정치문화의 기본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pp. 79-80; 윤천주, 『한국정치체제: 단국적 통치형』 (서울: 일조각, 1991), pp. 166-170 참조.

16) 줄고, "북한 역사관에 나타나 유물론," 『동아연구』, 제24집 (1992), pp. 163-166.

17)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36.

그러면서도 ‘자주성’, ‘민족의식’,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대단결’, ‘사대주의 반대’, ‘자력갱생’, ‘민족적 자주의식’ 등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인민들의 정치사상교양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원칙을 형식상 고수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사회에 전통적 특성의 하나로서 내재화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정향에 편승,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일찍이 민족의식내에 잠재해 있던 성향, 그리고 한국동란으로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반미의식을 자극하여 잠재의식의 현재화 및 정치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온 통치전략에서 비롯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Ⅳ. 주체사상의 변용: 민족주의적 특성의 공식화

이상의 특성들이 주체사상에 용해되어 하나의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 사회주의혁명론,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특성이, 영도예술, 연도체계의 핵심이론인 혁명적 수령론, 후계자론에는 전체적 권위주의 특성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및 지도원칙, 그리고 대외관계인식에는 민족주의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가운데 민족주의적 특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주체사상의 이론체계에서 표면화 내지는 공식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우리민족제일주의’ 문에 나타나고 있는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동안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를 제기한 이래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었지만 민족주의 자체를 공식적으로 표면화하지는 않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자주성’,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민족주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왔다. 예컨대,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1985년에 펴낸 『철학사전』의 ‘민족주의’ 항목에서,¹⁸⁾ 민족주의를 “천민족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 민족 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 리익과 민족적 리익을 자각할 수 없게 하며, 대외적으로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적 불화와 모순을 격화시키는 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1986년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제기된 이후 민족주의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변화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관련된 귀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

1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 힘, 1988), pp.231-232.

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¹⁹⁾

이 귀절에서 단순히 민족주의라 하지 않고 ‘우리 민족제일주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동안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편의상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다”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용어에 함축된 뜻은 더 정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즉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강조는 사회주의권의 여타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거나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들과 다른 민족임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포한 표현이라고 본다. 이는 이 글이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내세워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한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권의 개혁 움직임에 대한 이론적 방어와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 글이 1986년 7월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민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김정일의 글이 발표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1985년 10월에 김정일은 “정론: 민족의 징표”라는 글에서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²⁰⁾라고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민족 구성요소 중 경제적 측면의 공통성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의 민족에 대한 계급론적 해석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다.²¹⁾ 이는 민족을 경제적 요소의 공통성까지 고려하여 규정한 사회주의적 민족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조선민족은 소련, 중국, 동구권 등의 사회주의 진영의 민족과는 피줄과 언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걷는 방식에서 독자성을 떨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김정일에 의해 제기된 ‘우리 민족제일주의’ 강조는 1989년에 간행된 고영환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자기 민족제일주의의 본질과 기초는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형성되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며, 이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혁명전통과 위대한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 마침내 그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게 됨”을 역설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²²⁾

이러한 민족 자주성의 강조는 1991년 김정일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인민대중보다 민족이 우위임을 명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이론체계에서 민족이 계급의 상위에 서는 개념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1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앞의 책, pp.317-318.

20) 김정일,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p.14.

2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민족개념과 북한의 민족개념에 대해서는 김용구, “전통적 민족개념과 공산권 민족개념의 비교,” 『통일정책』, 제5권 제1호 (1979), pp.16-30; 최상룡, “남북한의 민족개념 비교,” 『통일정책』, 제4권 제4호 (1978), pp.12-26; 양호민, “남북한의 민족이념: 북한의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앞의 책, pp.45-59; 김윤식, “북한의 민족이념: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앞의 책, pp.27-44; 신일철, “북한의 국사관 형성: 1950년 스탈린 민족이론 수정과 1956년 이후 북한 교조적 민족사관화,” 『북한 ‘주체 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출판부, 1987), pp.297-337 참조.

22) 고영환,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pp.66-198.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²³⁾

민족의 계급에 대한 우위입장은 1991년 8월 1일에 발표된 김일성의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 더욱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이 이 담화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면서 주체사상이 곧 민족주의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 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수 있습니다.”²⁴⁾

이상의 인용문에서 민족이 계급보다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민족반역자와 놀고 먹는 자만 빼고는 직업, 종교, 과거의 경력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민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에서 보듯이 현재의 역사발전단계에서는 애국주의자만이 공산주의자와 국제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 민족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시점에서는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의 대용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위기로부터 초래하는 이데올로기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울러 민족의 통일문제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태도라고 해석된다. 즉 이런 태도변화는 기존의 사회주의 이상이나 주장이 시대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 국제주의자는 결국 같은 것이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 그리고 김일성 자신은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했던 항일혁명전통의 화신으로 참다운 민족주의자임을 강조함으로써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2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앞의 책, p. 546.

24) 김일성,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대표 성원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과 정통성을 고수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체사상의 변용의 결과 표면화된 민족주의적 특성에는 북한 특유의 민족주의적 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 바로 여기에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인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는 것이다”²⁵⁾라는 귀절에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결국 ‘우리민족제일주의’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의 정당화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체사상이 지니는 민족주의 특성의 근원을 김일성의 업적 및 항일혁명전통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민족주의에는 흔히 말하는 민족의식, 민족문제, 그리고 민족주의의 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다분히 쇼비니즘적인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단한’ (폐쇄된)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주체사상의 사회발전의 역동성은 점점 퇴화된 채, 특수한 형태의 권력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둘째,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가 지닌 본질적 특성 예컨대, 민족주의의 단순성과 낭만성²⁶⁾이 체제가 정체성 위기에 처했을 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엄격한 교리보다 보다 명백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둘째로는 자주성을 핵심가치로 한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민족주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주체사상의 생성·발전·변용의 과정이 바로 북한 특유의 민족주의의 자기 발전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북한 통치엘리트들이 역사문화적인 배경에서 내재화되어 있던 반외세성향을 통치체제의 정통성 확립에 적절히 활용한 점, 즉 전통과의 공명²⁷⁾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서 민족의 구성요소 가운데 경제적 공통성을 제외한 이유는 대남정책적인 고려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민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데 있겠지만, 민족통일문제에 있어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역점을 두고 민족의 일체성을 논의하게 되면 서로 경제적 단위가 다른 남북한의 경우 한 민족이 아니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사회주의의 종말이라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어기체로서 1950년대 중반의 ‘주체’개념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을 도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치료법’을 도입한 결과, 처음에는 민족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결과적으로 그 민족주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아이러니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주의화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생성·발전·변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25) 김영환, 앞의 책, p.192.

26) Anthony D. Smith, 앞의 글, pp.357-358.

27)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참조.